

# 광주 자치구, 직원 월급도 못줄 판

## 세계 개편·경기 침체 여파 취·등록세 등 세입 급감 서구청 제외 4개구청 8개월분 급여만 본예산 편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내년에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광주지역 자치구들에 따르면 부자 감세 등 정부의 세계 개편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교부세·거래세 등 자치구 세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광주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이들 구청은 전체 12개월 급여 중 우선 8개월분만 본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추가 세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

고 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총액 인건비가 376억원이지만 내년 예산안에 8개월분인 299억원(79.5%)만 편성했다. 남구는 인건비 351억원 가운데 251억원(71.5%)만 편성했고, 북구는 621억원 중 469억원(75.5%)을, 광산구는 537억원 중 349억원(64.9%)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사태는 세입은 줄어든 데 비해 세출은 대폭 늘어나면서 빚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정부의 부동산교부세가 각 구청별로 50억~60억원 줄어든데다 광주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부동산 거래

세)도 최대 156억원까지 대폭 감소했다. 또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일반 시·군과는 달리 광역단체 자치구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배분기준이 마련된 것도 세입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세출은 국비와 매칭펀드로 편성되는 복지 사업과 국가 보조 사업이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광주 북구의 경우 정부의 세계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3조4천억원에서 올해 1조46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내려보내

던 부동산교부세를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50억원(목적성 예비비)으로 줄였다. 북구는 내년엔 더 줄어 20억원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광주시 보통교부금(부동산 취득세·등록세)도 지난해 62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43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세출 분야에서는 보육돌보미 서비스 사업 등 내년 복지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80억~90억원 증가했고 보육시설환경개선 등 보조사업도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엔 316억원으로 급증 뛰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겠지만 지방세 세목을 확대하거나 지방소비세·보통교부세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벨평화센터 앞 오바마 포스터  
노르웨이 오슬로의 노벨평화센터 앞에 노벨 평화상 수상예정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포스터가 걸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 先 6자 복귀 VS 先평화협정 ‘신경전’

### 보즈워스-강석주 회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평양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본회담을 갖고 북핵 현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대표단은 지난 8일 오후 평양에 도착한 뒤 북측 대표단과 1차회담을 갖고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뒤 비공식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즈워스 대표는 8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1차회담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날 중 김 부상보다 격이 높은 강 제1부상과 본회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강 제1부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제1부상은 6자회담 복귀 이전에 한반도 평화협정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8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평화협정은 북·미가 아닌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별도 포럼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관계정상화는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러나 이번 북·미대화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형태로 극적인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 “내년 광주시장 경선 빨라야 3월”

### 김동철 민주 시당위원장 “전략공천 힘들 듯”

민주당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은 9일 “내년 광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은 빨라야 3월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각 시도(당)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 대표가 어제(8일) 시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애초 후보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생각에서 원칙론적 입장으로 후보 조기 경선론을 주장했으

나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각 시도 상황에 맞게 경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도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2월은 너무 빠르고 3월 중에 하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부의 3월도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많이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빨리(선거 운동에) 시동을 걸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기후변화 난민

### 2050년 10억명”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8일(현지시간) 이를 짚어준 가운데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40여년 후인 2050년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2천500만명에서 10억명이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만 해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2천만명이 집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최근 20년간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배로 늘었으며 사막화, 수질오염 등으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부분 국경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국경 간 이동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합의문 초안 선진국만 유리”

### 기후회의의 선진-개도국 갈등 본격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개막 이틀째인 8일 중국이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맹비난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덴마크의 합의문 초안이 큰 반발을 야기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수위 기후변화 협상 대표

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례적으로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지나치게 ‘소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최국인 덴마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코펜하겐 합의서’ 초안이 영국 일간 가디언 지 웹사이트에 공개되면서 개도국과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 신종플루 지원... 남북대화 모멘텀 살릴까

### 정부, 오늘 북에 실무접촉 타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플루 관련 대북 지원이 막 막힌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북한에 신종플루 관련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의사를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468명 입국 등으로 남북 대화의 중단기가 이어지던 2005년 4월에도 북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소재를

제공한 바 있다. 정부가 북에 조류독감 관련 협력의사를 전달하고, 북이 지원을 공식 요청해오면 따라 남북 간 실무접촉이 진행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2005년 당시처럼 남측의 지원의사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최근 남북 해외공단 합동 시찰에 나서기로 한데서 보듯 북은 여전히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뜻이 있기에 수용할 것이라



퍼시스·쇼룸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쇼핑을 위한 최고의 공간. 최고의 쇼핑을 위한 최고의 공간.

FURSYS TEENS Room